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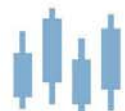


WP 19-13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사례를 대상으로

정유선 국토연구원 연구원(ysjung@krihs.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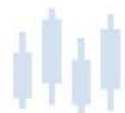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혁신도시 개괄 및 분석대상 도시 개요	09
03 유입인구 특성 분석	15
04 가구 이동 특성 분석	21
05 분석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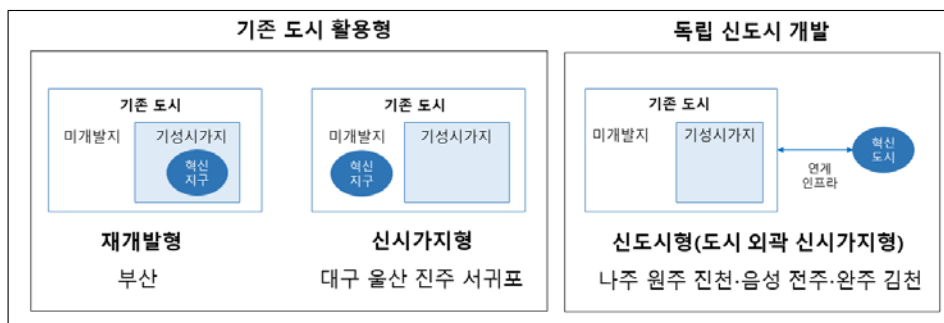


01 서론

1) 연구의 배경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성장 거점 정책임
 - 2012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어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되었고, 2019년 12월 공공기관 153개의 이전이 완료(혁신도시 시즌 2 홈페이지 2019)
- 혁신도시는 지역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주환경을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초기에 목표했던 만큼 정주인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의 활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도 있음
 - 대부분 도시가 인구가 적으니 수요가 적어서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지 않고, 시설이 없으니 신규 유입인구가 적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음
- 혁신도시는 ‘재개발형’, ‘신시가지형’ ‘독립신도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음
 - 기능과 입지에 따라 도심 인근에 소규모로 입지하는 재개발형,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나대지에 중규모로 개발하는 신시가지형,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신도시형으로 구별¹⁾

그림 1 혁신도시 개발 유형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30; 국토교통부 2019, 15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1) 각 유형별 도시 분류는 기존 문헌의 분류를 따르고 있음. 그러나 원주, 전주·완주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신시가지형과 구별이 모호함.

- 혁신도시의 유입 인구 및 가구 특성은 위와 같은 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며, 도시 외곽에 건설된 신도시형의 경우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 개발 유형에 따라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기존 도시의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입인구의 규모나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신도시형은 기존 도시와 거리가 있어 기 조성된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도시권의 인구 규모가 적어 새로운 시설이 입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림
-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가족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등 형성된 도시를 안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8)
 - 이러한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보다도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유입인구 현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처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형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규모, 혁신도시와 수도권과의 거리, 인접한 도시의 규모 등도 도시의 안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비교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 다른 유형에 비해 정주환경 조성이 어려운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인구구조 현황을 분석
- 신도시형 혁신도시 중 기존 도시와 거리가 다른 두 도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각 유형별로 혁신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
 - 두 도시는 인구를 가장 많이 달성하였지만 가족동반 이주율과 인구구조에서 차이가 있음
 - 인구를 10세 구간별로 분리하여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특히 많이 이주하는 20~50대를 심층적으로 분석
- 정부청사의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신도시인 둔산신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도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 2018년 말 발표된 혁신도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계획인구의 5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와 이전인구가 가장 많은 혁신도시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로 나타났음
- 두 혁신도시는 모두 신도시형 혁신도시에 속하지만 기존 시가지로 접근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이용, 신규 인프라 도입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됨
-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계는 2014년 신설된 빛가람동이지만 혁신도시 조성 및 이주가 시작된 2012년부터 동일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금천면, 산포면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 신도시 형태임
-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4개 면, 동에 걸쳐져 있음²⁾
 - 전북혁신도시는 만성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제1, 2일반산업단지와의 인접해 있어 전주의 서부 확장 축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연구의 시간적 범위: 2012~2018년

- 혁신도시 조성이 시작된 2012년부터 가장 최신으로 구할 수 있는 이동통계인 2018년까지 8년간 자료 분석
 - 2018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2012~2018년 국내이동인구통계³⁾의 전출 및 전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는 이동인구를 합쳐서 분석하였고, 일부는 이동가구수를 중심으로 분석

2) 효자4동의 일부가 혁신동으로 분리되기 이전 혁신도시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전주시 시내의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침

3)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경우 전입 및 전출지가 드러나지 않고, 이주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이동 특성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간격으로 조사되어 2010년과 2015년만 비교 가능함.

02 혁신도시 개괄 및 분석대상 도시 개요

1) 혁신도시 정책 추진 경과

■ 혁신도시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의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 거점을 형성하고자 했던 정책임

- 혁신도시는 2012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어 2019년 현재 약 7년이 경과하였으며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되었고, 2019년 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2개(99.3%)가 이전을 완료한 상태임(혁신도시 시즌 2 홈페이지 2019)
- 이전 기관 직원 3만 9,593명 가운데 62%인 2만 4,561명이 혁신도시에 정착하였고 주민등록인구는 목표인구 26만 7천 명의 71.2%인 19만 2,539명을 달성한 상태임(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 지방세 수입 증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8)

■ 혁신도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발전 지체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수도권에 가깝고 도시 규모가 작은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출퇴근을 계속하는 인구가 많고 가족동반 이주율은 18.8%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른 도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일자리는 있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적음'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1인당 상가밀도 분석결과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진주) 등은 전국 평균 대비 과잉 공급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한국감정원 2018),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체 건물 중 상가 건물 비중이 36%이지만 공실률이 70%에 달함(나주투데이 2019)

■ 이전 거주지에 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상대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8.7점

- 2018년 10개 혁신도시 거주자 2,23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51.8점이며, 광주·전남혁신도시는 43.5점, 충북혁신도시는 49.3점이었음(서던포스트 2019)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의료서비스,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공공기관 이전 직원 및 가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및 사업의 이유(88.5%)로 이주하였으며, 인근 도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우에도 직장 또는 사업의 이유(39.8%)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고, 가족구성원의 직장이전(21.7%)가 2위를 보임
- 이전 직원 및 가족 중 결혼을 하였으나 단신 또는 가족의 일부만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응답자 290명을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문제(47.5%), 가족의 직장문제(43.6%),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19.8%)이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음

■ 2018년부터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 중임

-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중앙일보 2019)
- 2018년부터는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추진 중이며, 주요 목표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 입주 활성화 등 4개임(관계부처 합동 2018)
 - 가족동반 이주율의 목표는 현재 58%에서 2022년까지 75%로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육시설 등 교육시설, 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등 정주 인프라 투자를 늘릴 계획임

2)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

■ 혁신도시는 ‘재개발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부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으로 구분됨

-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 울산 등 기존 도심에 만들어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근무자는 평균보다 높은 이주율을 보였으며, 계획인구 달성률도 높게 나타났음
- 신도시형 혁신도시들은 내부적으로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상가 공동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편, 주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켜 모도시의 원도심을 쇠퇴시키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음

표 1 유형별 혁신도시 계획

유형	혁신도시	계획인구 (명)	모도시인구 (만 명)	서울과의 직선거리(km)	시청과의 거리
재개발	부산	7,000	350	약 330	2-4km 이내
	대구	22,000	248	약 240	10km 이내
신시 가지	울산	20,000	117	약 305	4km 이내
	경남	38,000	35	약 284	5km 이내
	제주	5,000	17	약 480	2km 이내
신도시	광주·전남	49,000	11	약 280	나주 9km/ 광주 18km 이내
	강원	31,000	34	약 90	7km 이내
	충북	39,000	17	약 90	13-16km 이내
	전북	29,000	75	약 190	전주 9km/ 완주 13km 이내
	경북	27,000	14.3	약 190	8km 이내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저자 수정;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2 혁신도시별 규모 및 인구 달성 현황

유형	혁신도시	규모면적 (천㎡)	주민등록인구(2018)			이전완료		
			계획	실적	비율	기관 (개)	이전 인원	주민등록 인구대비 비율
재개발	부산	935	7,000	7,509	107.3	13	3,316	44.16
	대구	4,216	22,000	17,163	78	11	3,507	20.43
신시 가지	울산	2,991	20,000	20,213	101.1	8	3,211	15.89
	경남	4,093	38,000	20,571	54.1	11	4,090	19.88
	제주	1,135	5,000	4,476	89.5	6	721	16.11
신도시	광주·전남	7,361	49,000	30,819	62.9	15	7,533	24.44
	강원	3,585	31,000	21,603	69.7	12	4,928	22.81
	충북	6,899	39,000	22,031	56.5	10	2,942	13.35
	전북	9,852	29,000	26,951	92.9	12	5,239	19.44
	경북	3,812	27,000	21,203	78.5	12	4,106	19.37
계		44,879	267,000	192,539	72.1	110	39,593	20.56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12-13, 저자 수정.

표 3 혁신도시별 이전인원의 이주 통계

유형	혁신도시	이전인원 (A)	가족 동반(B)	독신 미혼(C)	단신 이주	출퇴근	가족동반 이주율 [B/A]	미혼독신 포함 시 [(B+C)/A]
재개발	부산	3,316	1,543	924	848	1	46.5%	74.4%
	대구	3,507	1,313	961	1,218	15	37.4%	64.8%
신시 가지	울산	3,211	1,321	824	1,044	22	41.1%	66.8%
	경남	4,090	1,396	872	1,822	0	34.1%	55.5%
	제주	721	339	189	190	3	47.0%	73.2%
신도시	광주·전남	7,533	2,979	1,854	2,671	29	39.5%	64.2%
	강원	4,928	1,446	1,523	1,640	319	29.3%	60.2%
	충북	2,942	554	586	595	1,207	18.8%	38.7%
	전북	5,239	2,616	1,059	1,524	40	49.9%	70.1%
	경북	4,106	1,208	1,054	1,500	344	29.4%	55.1%
계		39,593	14,715	9,846	13,052	1,980	37.2%	62.0%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12, 16 표를 재배열

3) 분석 대상 도시 특성

■ 분석대상인 두 도시는 이전기관 수와 이전인원이 많으며 2018년 집계 당시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시형 혁신도시임(〈표 2〉 참조)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수와 이전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주민등록인구도 3만 명이 넘어 가장 인구가 많은 혁신도시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인구 달성률은 62.9%로 낮은 편임
- 전북혁신도시는 조성규모가 가장 크고, 이전인원, 주민등록인구 수가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계획 대비 인구를 92.9% 달성하여 신도시형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두 도시의 이전인원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7,533명, 전북이 5,239명으로 광주·전남이 약 1.43배 많으나, 2018년 주민등록인구는 1.14배에 그치고 있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조성 규모는 크지만 기존 시가지와 분리된 신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음

- 광주광역시 인구는 약 146만 명으로 거점 도시에 해당하지만 광주·전남혁신도시 간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주요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인구가 약 11만 명인 나주시 도심과도 거리가 있음

■ 전북혁신도시는 신도시형으로 분류되지만 전주의 서부축 확장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음

- 전주시의 인구는 약 65만 명, 완주군은 약 9만 명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비하면 모도시 인구가 적은 편이나 혁신도시 이외에도 5km 반경에 전주시의 주요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전주시 서부축 도시 경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효자4동에는 전라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대학교, 서전주아울렛, 전주경륜장 등 기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며, 인접한 팔복동에는 전주 제1산단과 제2산단이 위치하고, 인근에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주지방법원 이전 등이 진행 중임(연합뉴스 2017)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에너지, 방송통신, 농업지원,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전북혁신도시는 농축산업 및 식품 분야 및 기타 분야를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전력거래소, 한전 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임

-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에 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임

■ 두 도시 모두 인근 도시에서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나주역에서는 12분, 광주송정역에서부터 차로 25분이 소요되며, 나주터미널까지는 16분, 광주터미널까지는 30분이 소요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시 서쪽 경계에 위치해 동쪽에 위치한 전주역까지는 차로 20~30여 분이 소요되며, 익산역까지도 30분이 소요됨

■ 두 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과 출퇴근 인구에서 차이를 보임(〈표 3〉 참조)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편이고 단신으로 이주한 경향이 많아 계획 대비 인구는 미진한 편이나 전북혁신도시는 단신이주 및 출퇴근 인구도 적은 편임

표 4 연구의 공간적 범위

구분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빗가람동	•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효자5동 ¹⁾ , 덕진구 동산동, 혁신동 ²⁾ , 완주군 이서면
시청과의 거리	• 나주시청 9km 이내 • 광주광역시청 18km 이내	• 전주시청 9km 이내 • 완주군청 13km 이내
이전인원	• 조성면적 7,361,000㎡, • 이전기관 15개, 이전인원 7,533명 • 가족동반 이주율 39.5% • 미혼독신포함 이주율 64.2%	• 조성면적 9,852,000㎡, • 이전기관 12개, 이전인원 4,106명 • 가족동반이주율 49.9% • 미혼독신포함 이주율 70.1%
인구현황	• 목표인구 49,000명 • 2018년 주민등록인구 30,819명 • 달성률 62.9%	• 목표인구 29,000명 • 2018년 주민등록인구 26,951명 • 달성률 92.9%
입지현황	• 나주시 외곽에 건설되어 도심과 거리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와는 교통이 불편함	• 5km 반경에 전주시 주요 시설이 위치 • 전주시 서부축 확장축의 일부로 계획
위치도		

주: 1) 국내이동통계 분석에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효자5동을 포함하지 못하였음.

2) 2017년 주민투표를 통해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 4동의 일부를 편입하여 혁신동을 신설하였고, 효자4동은 효자4동과 효자5동으로 분동되었음.

자료: 윤영모 2017, 26, 저자 수정; 윤영모 외 2018, 68-70, 저자 수정.

03 유입인구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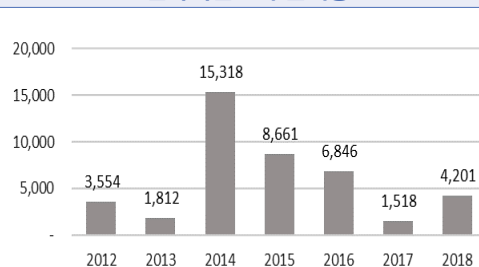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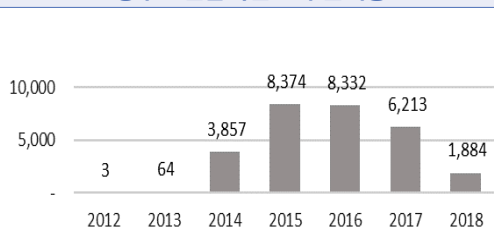
1) 유입 인구 현황

■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의 유입인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연도별 이동 통계를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14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2017년까지 많은 인구가 이주하였으며 2018년에는 인구이동이 크게 줄어들었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으며, 그 뒤로 인구 이동이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연도별 이동인구통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입	1,316	1,404	6,083	13,410	16,208	14,707	12,369	65,497
	전출	1,313	1,340	2,226	5,036	7,876	8,494	10,485	36,770
	순이동	3	64	3,857	8,374	8,332	6,213	1,884	28,727
전북 혁신도시	전입	20,204	20,495	38,285	32,263	32,323	24,460	27,216	168,030
	전출	16,650	18,683	22,967	23,602	25,477	22,942	23,015	130,321
	순이동	3,554	1,812	15,318	8,661	6,846	1,518	4,201	37,709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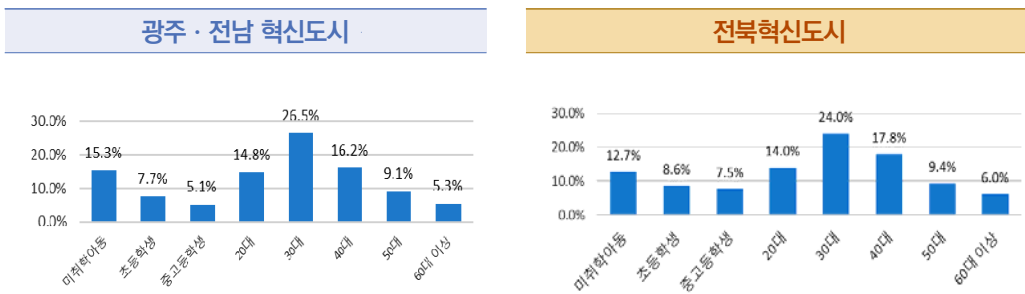
-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는 2만 8,727명이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한 <표 2>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해보면 광주혁신도시는 인근에 인구 유입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고 출생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적게 추산되었음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는 4만 1,910명으로 혁신도시발 전추진단이 발표한 2만 6,951명 대비 전북혁신도시는 약 1.5만 명이 더 많은 인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에 전주 기존 시가지, 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이 인접하여 혁신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계된 것으로 판단됨

■ 연령대별 이동 인구를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이주인구 규모는 3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북혁신도시는 30대 인구가 24.0%이며 40대 이상 인구와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소폭씩 더 많게 나타남

- 두 도시의 연령대별 이동 통계를 보면 30대 인구와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40대 이상의 인구 이동규모에 비해 초·중·고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주 규모는 작은 편이어서 동반가족 이주율의 저하가 40대 가구주의 이동 경향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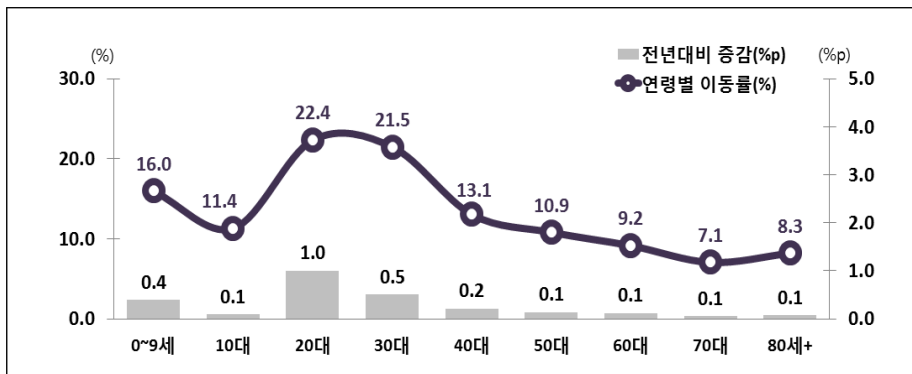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순이동인구 통계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2018년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2.4%)와 30대(21.5%)가 가장 높아 혁신도시의 인구이동은 전국 대비 30대와 40대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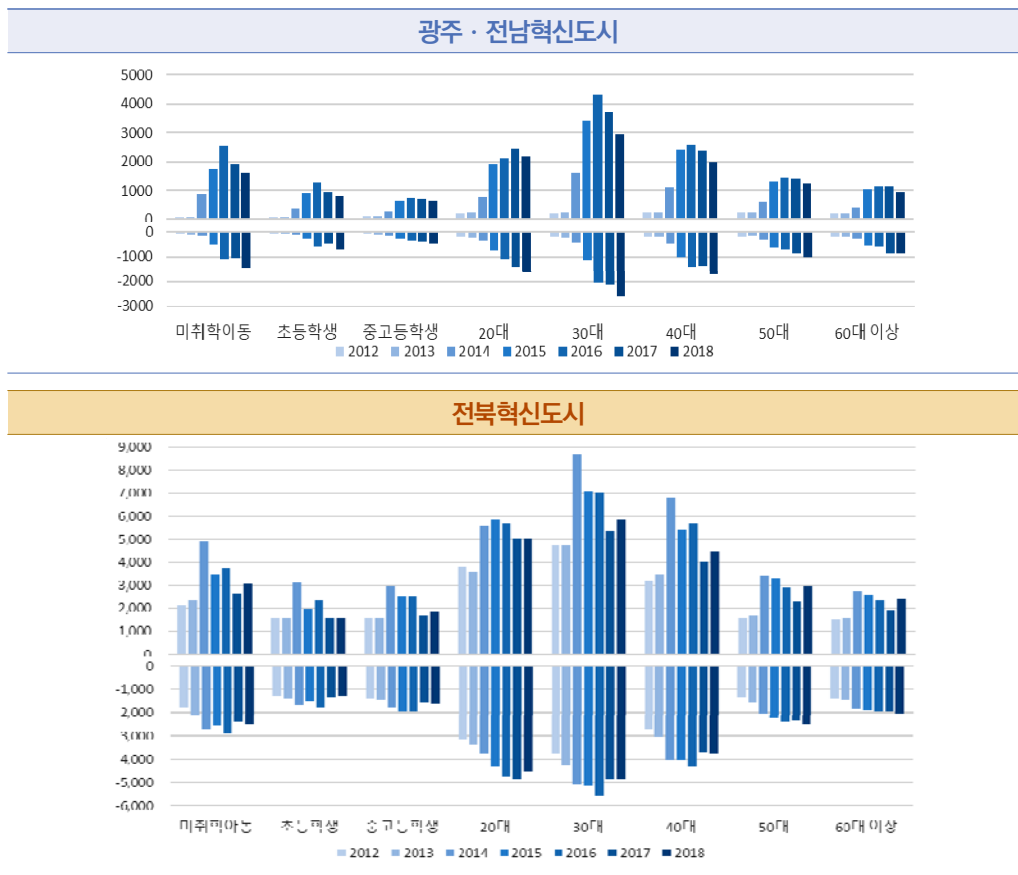
그림 3 2018년 연령별 이동률



출처: 통계청 2019, 4.

- 연도별 전입전출로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전입인구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2015~2016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
 - 특히 20대와 30대가 매년 많이 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2018년 순이동인구의 큰 감소를 불러오고 있음
 - 2016년부터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SRF⁴⁾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전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전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분석될 필요가 있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입인구와 전출인구 규모가 광주·전남에 비해 훨씬 커서 인구이동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광주·전남과 다르게 전출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음
- 연령 그룹 간에 연도별 전입 전출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림 4 전입 전출인구 통계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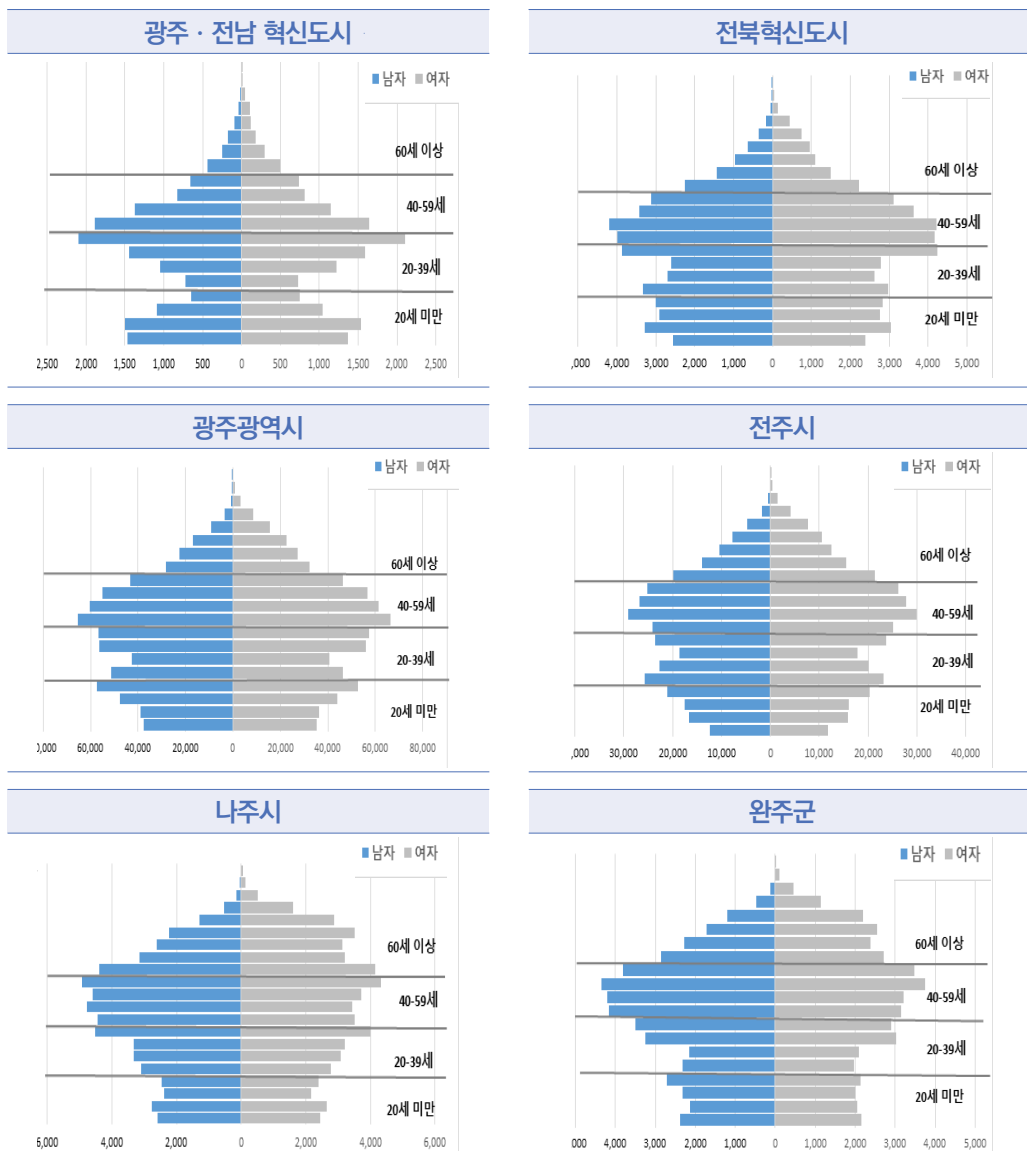
4) 폐기물 고품연료(Solid Refuse Fuel) :생활폐기물 속 연소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2) 인구 구성 변화

■ 연령별 인구 구성을 모도시격인 각 도시와 비교해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모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모도시 중 하나인 전주시와 크게 차이가 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의 인구와 대비하여 30대 인구나 9세 이하 인구가 특히 많고 20대, 50대 인구가 적게 나타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50대 인구나 1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전 연령층이 고른 분포를 보였음

그림 5 주민등록인구 성별, 5세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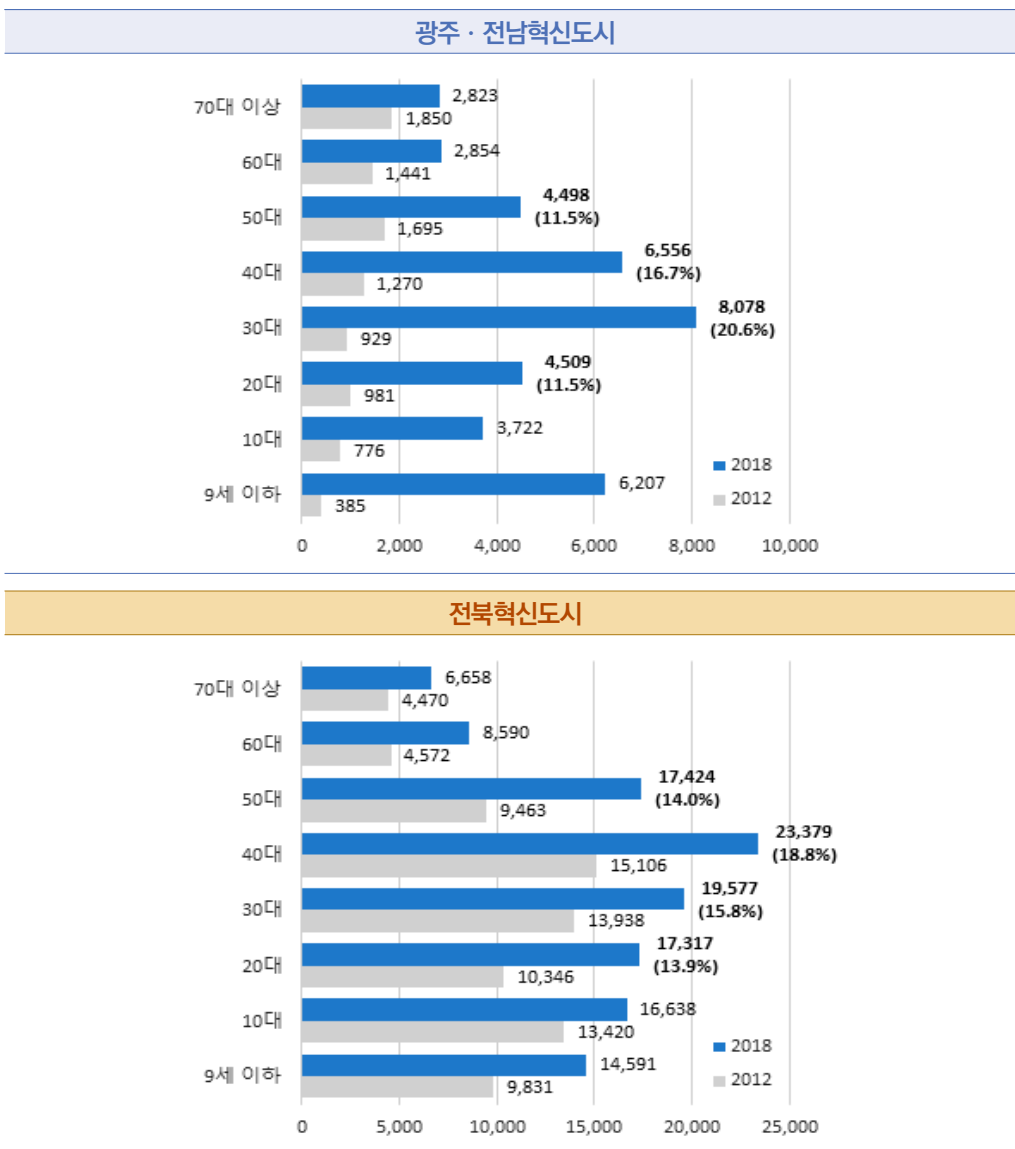
주: 2018년도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빛가람동'만 분석하였음.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5세별 자료를 재구성.

■ 혁신도시 조성 전후의 인구구조를 비교해 보면 광주·전남은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젊은 인구 구조로 전환하였고, 전북은 인구구조는 유지한 채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기존 인구도 매우 적고 고령화가 심했던 지역에 30대와 40대를 주축으로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9세 이하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대와 50대 등 경제력이 있는 세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6 혁신도시 조성 전후의 인구구조 변화



주: 2018년도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빛가람동'만 분석하였음
출처: KOSIS. 2012년과 2018년 주민등록인구통계 5세별 자료를 재구성

3)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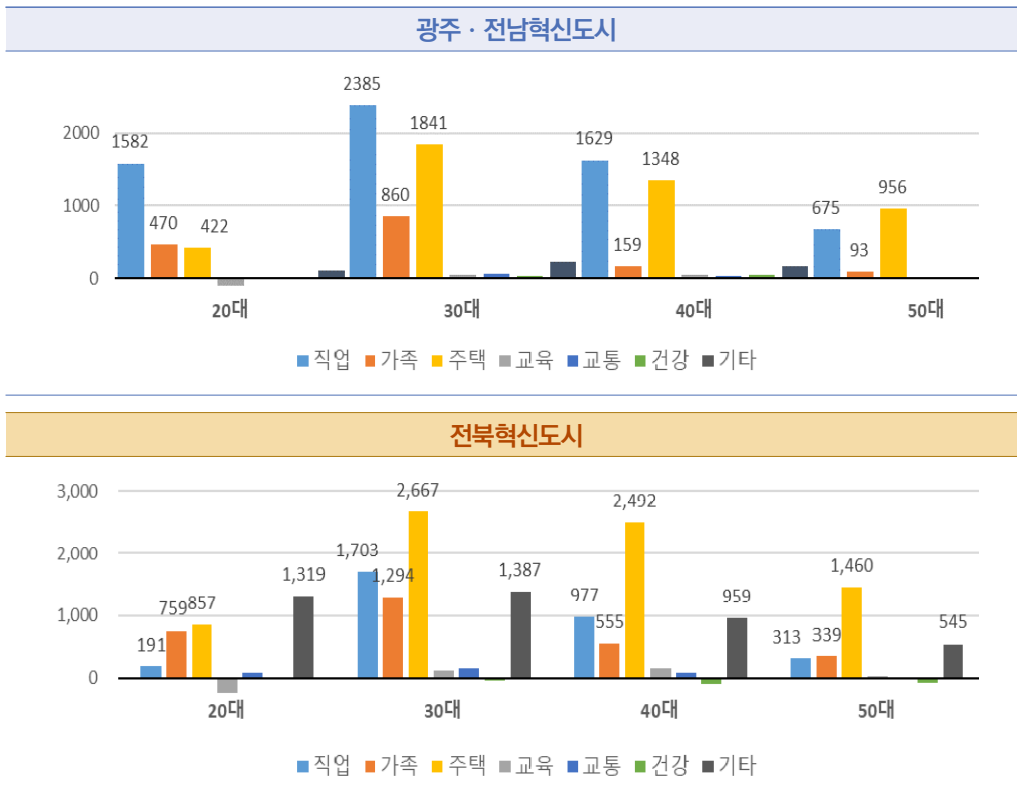
- 혁신도시로의 이주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전출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목표 인구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전출의 이유로는 2016년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 SRF 발전소 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연령대별 이동인구를 보면 이주 인구는 30대가 가장 많으나 전북혁신도시는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 30대와 미취학아동 비율이 낮고 다른 연령대가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이주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이 연령대별 이동 인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모도시와의 거리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혁신도시 전후를 비교해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젊은 인구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전북혁신도시는 기존 인구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성장하였음
 - 인구 구조 면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30대 인구와 미취학아동 비율이 모도시인 나주나 광주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모도시인 전주시와 큰 차이가 없음

04 가구 이동 특성 분석

1) 가구 특성 분석

■ 대표전입자⁵⁾의 연령대별 이동사유 통계를 보면 두 도시 간 직업 목적의 이동이 차이를 보임

그림 7 대표전입자 연령대별 이동 사유



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 사유의 이동이 가장 많게 나타나며, 주택 사유 이동은 두 번째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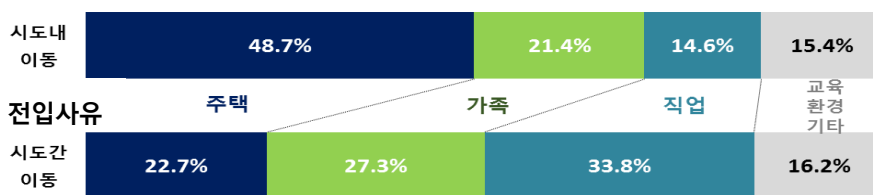
5) 전입신고자로 서류상 전입자 1로 기재됨. 세대주인 경우도 있고 세대원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됨. 대표전입자의 연령대 중 가장 순이동이 많이 나타나는 20~50대만을 도표로 나타내어 분석함.

- 전북혁신도시는 직업 목적의 이동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며, 주택 목적의 이동이 크게 나타나고 기타 목적의 이동이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이동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공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 유입에 유리한 반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들이어서 20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 기타 목적이 상당히 많은데 반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향후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직업 목적으로 이주한 20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직업목적으로 이주한 20대는 매우 적고 가족, 주택의 사유로 대부분 이주하였음
- 전국 통계와 비교해보면, 두 도시의 이동사유는 직업과 주택 사유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 사유는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남

표 6 전입사유별 전국 이동자수 및 구성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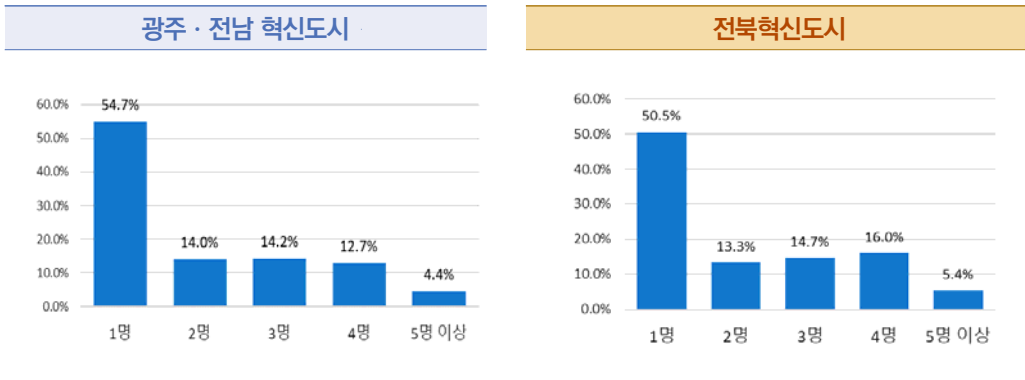
구분	구분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8년	전체	7,297	1,532	1,702	2,921	313	248	79	502
		(100.0)	(21.0)	(23.3)	(40.0)	(4.3)	(3.4)	(1.1)	(6.9)
	시도 내 이동	4,868	711	1,039	2,369	172	187	40	350
		(100.0)	(14.6)	(21.4)	(48.7)	(3.5)	(3.8)	(0.8)	(7.2)
	시도 간 이동	2,429	820	663	552	142	62	38	152
		(100.0)	(33.8)	(27.3)	(22.7)	(5.8)	(2.5)	(1.6)	(6.3)



출처: 통계청 2019, 4.

- 이동인원별 순이동 건수를 보면, 1명이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7,904건(54.7%), 전북혁신도시는 9,917건(50.5%)으로 가장 많았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경우는 4명이 이동하는 경우였으며, 2명만 이동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7 이동인원별 순이동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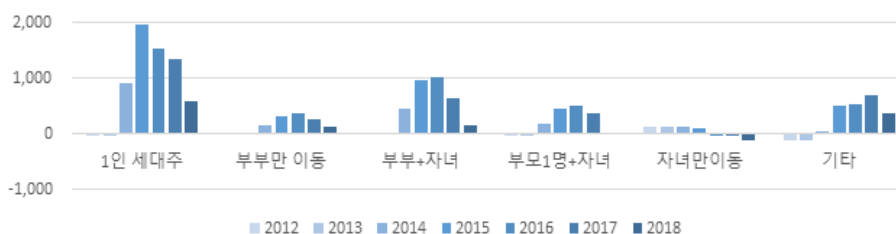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위주의 이동이 지속되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비중이 감소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세대의 이동이 증가하였음

- 1인 세대주가 이주하는 경우는 광주·전남혁신도시가 6,328건(43.8%), 전북혁신도시는 7,094건(36.1%)을 차지
- 각 도시의 상가 공실은 인구 대비 상가시설이 많이 공급된 탓도 있겠지만 1인 세대주 위주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표 8 광주·전남혁신도시 세대특성별 순이동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인 세대주	48.2%	46.1%	39.4%	41.2%	51.7%	43.8%
부부만 이동	8.6%	7.2%	9.3%	8.1%	11.7%	8.7%
부부+자녀	24.0%	22.3%	25.8%	19.2%	13.9%	22.2%
부모1명+자녀	10.0%	10.4%	12.8%	11.0%	1.1%	10.1%
자녀만 이동	7.0%	2.4%	-0.8%	-0.3%	-10.4%	2.1%
기타	2.2%	11.7%	13.5%	20.9%	32.0%	13.0%
건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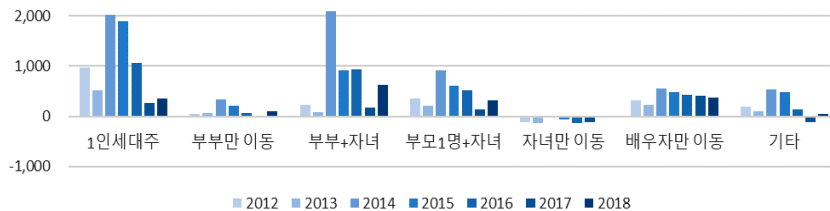


주: 2012년과 2013년은 전체 합계가 매우 적어 제대로 된 비율이 산출되기 어려워 개별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집계에는 포함함.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1인 세대주가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부부, 배우자의 이동 비율이 높아져 2018년에는 1인 세대주의 비율이 19.8%까지 낮아졌음

표 9 전북혁신도시 세대특성별 순이동 건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인 세대주	48.4%	48.5%	31.3%	41.9%	35.2%	35.8%	19.8%	36.2%
부부만 이동	2.5%	5.9%	5.3%	4.5%	2.0%	0.1%	5.9%	4.2%
부부+자녀	11.6%	8.3%	32.4%	20.5%	31.2%	22.9%	34.5%	25.9%
부모1명+자녀	18.0%	19.6%	14.2%	13.6%	17.4%	18.6%	17.3%	15.7%
자녀만 이동	-5.4%	-13.1%	0.0%	-1.5%	-4.5%	-16.6%	0.0%	-2.9%
배우자만 이동	15.8%	21.7%	8.5%	10.5%	14.4%	54.8%	20.1%	14.1%
기타	9.1%	9.1%	8.2%	10.5%	4.3%	-15.6%	2.3%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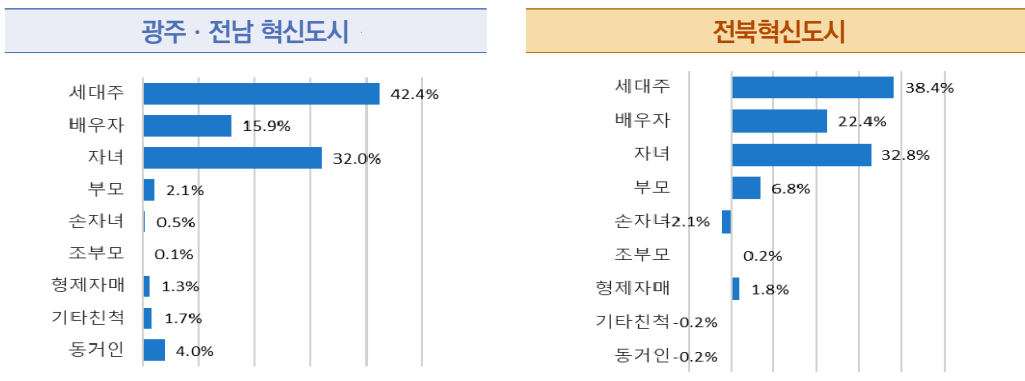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신고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보면 두 도시 모두 세대주, 배우자, 자녀 등 1인 가구 및 핵가족 중심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부모와 손자녀의 비율은 매우 적어 3세대 가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주의 비율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42.4%, 전북혁신도시가 38.4%로 광주·전남이 약 4% 많았으며, 배우자는 전북혁신도시가 6.5% 정도 더 많아 가족동반이주율의 차이를 볼 수 있음

그림 8 가구원 특성별 이동인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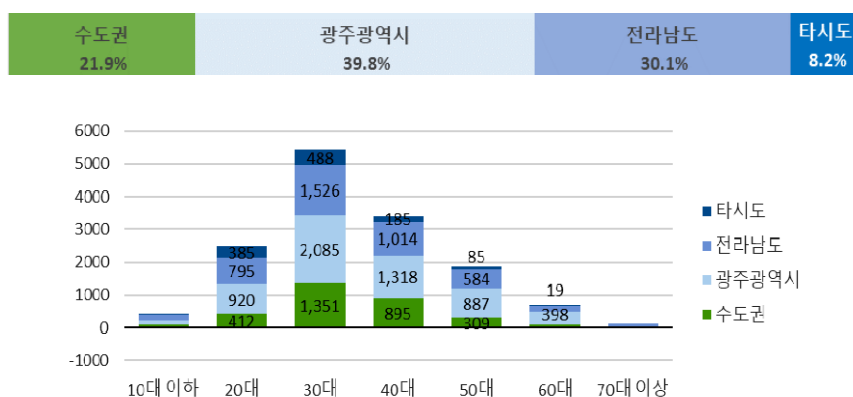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대표전입자의 지역별 이동 건수를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총 21.9% 이동하였으며, 전북혁신도시는 수도권의 비율이 7.7%로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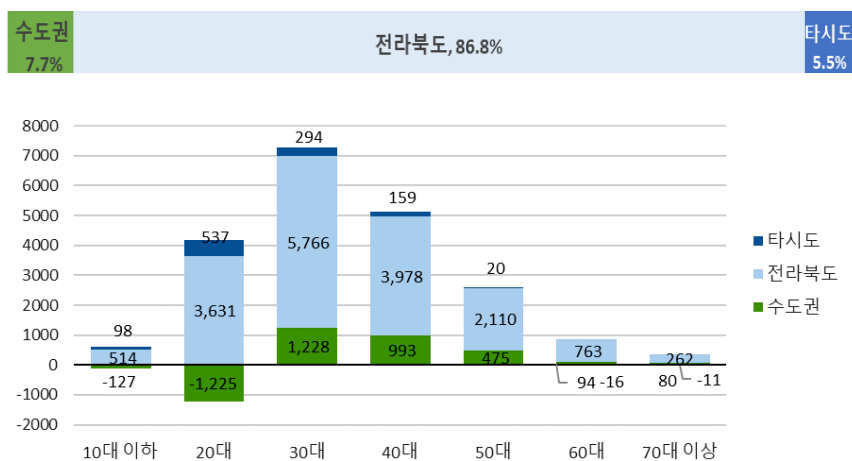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두 지역 다 30대와 40대의 수도권 이동자가 많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0대의 순유출이 커 수도권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됨
-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경우는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더 많았음

그림 9 대표전입자 연령대별, 이동지역별 순이동 건수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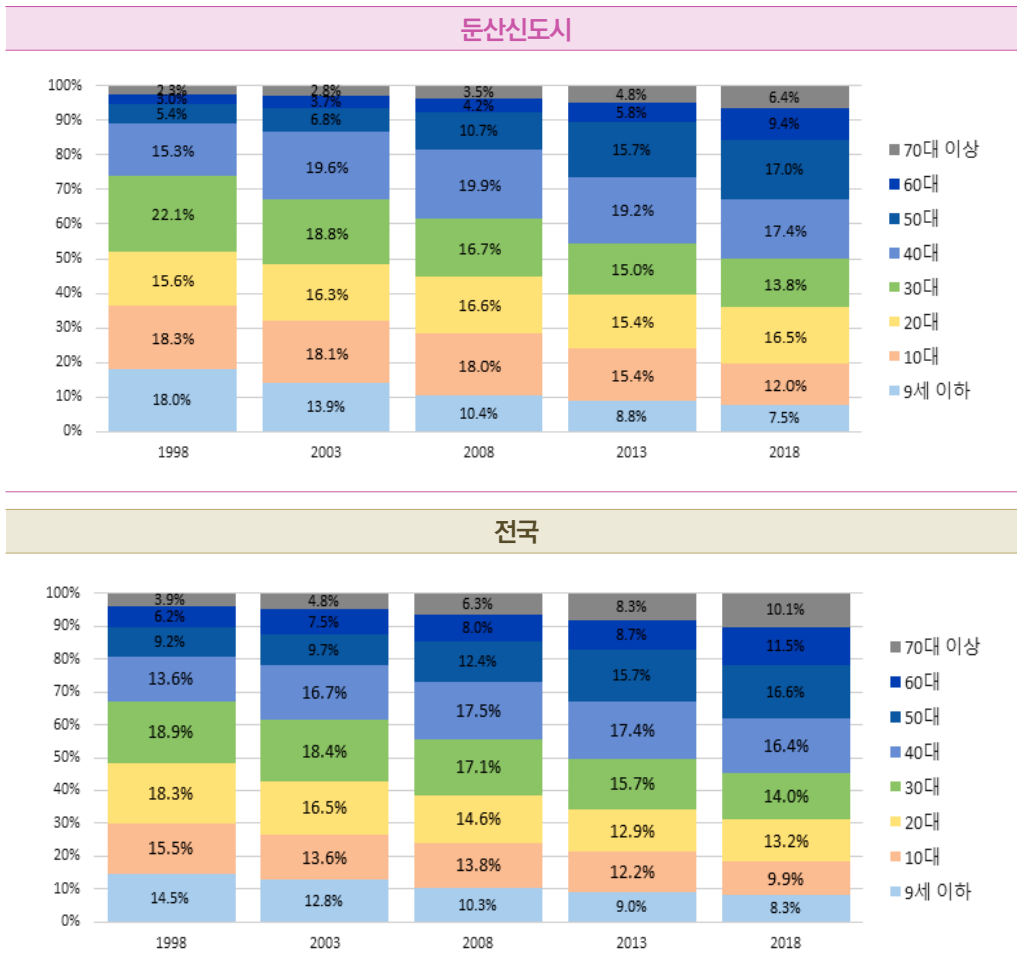


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2) 대전 둔산신도시와의 비교

- 혁신도시 유입 가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도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거점도시에 조성된 신도시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5대 신도시 이외에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대전의 둔산, 인천의 연수, 광주외 하남, 대구의 수성, 부산의 해운대 등이 그 예임
- 대전 둔산신도시는 새로운 혁신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와 유사하며, 조성 이후 30여 년이 지나 혁신도시 인구 유입 및 장기전망에 대한 비교를 하기에 적합함
 - 둔산신도시는 1985년 이후 대전시 탄방동, 둔산동, 갈마동, 월평동, 만년동 일대에 개발된 대규모 신도시로 1997년 정부청사가 이전하였고, 대전의 행정, 상업, 문화 기능을 집중하여 새로운 도심의 형성이 있었음
 - 정부청사가 이전한 1998년부터 5년 간격으로 인구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30대와 9세 이하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오히려 40대와 50대 인구가 전국 대비해서도 높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주거 이동 경향이 큰 30대가 신도시로 크게 유입되었다가 이들이 이주하지 않고 지역 내에 머무르면서 50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전정부청사 이전 5년 후와 10년 후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전 거주율, 연령층, 자녀의 나이 등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경원(2008)은 정부대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5년 간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전 5년 후인 2003년 조사에는 97.7%가, 10년 후인 2008년에는 설문조사 대상인 572명 중 96.5%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3년에는 가족 모두가 이주한 경우는 62.1%, 2008년에는 65.8%로 나타났고 혼자만 이주하는 경우는 2003년에는 32.1%, 2008년에는 29.5%로 근소한 변화가 있었음
 - 2003년과 2008년을 비교해보면 20대의 연령층은 줄어들고 50대 이상 연령이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교육도 유치원생이 줄어들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비율이 증가함

그림 10 둔산신도시와 전국의 연령별 구성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1998-2018년 자료 중 둔산1~3동, 월평1~3동, 만년동, 탄방동, 갈마1~2동 자료를 통합, 분석.

- 대전 둔산신도시는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동서간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는 한계도 있으며(대전일보 2008), 이는 현재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모도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점과 유사함

3)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 이동 사유로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직업 사유의 이동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는 주택 사유가 높게 나타남
- 두 도시 모두 핵가족 중심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구원 특성을 살펴보면, 전북혁신도시가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비율이 높아 보다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인 세대주의 비율을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1인 세대주 유입이 다수인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이동이 줄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증가함
- 지역별 이동건수를 살펴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수도권 이주비율과 이주 건수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났음
 - 다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치를 제외하면 30대와 40대의 유입 정도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유사하였음
-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였던 둔산 신도시 사례를 보면 이주율은 혁신도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초기에 비슷하게 30대와 9세 이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가 비중이 감소하며, 40대와 50대 인구로 변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전정부청사의 경우 이전 대상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비율이 현재의 혁신도시보다 훨씬 높아 9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동반이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05 분석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의 종합

- 혁신도시의 이주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현재는 증가세가 완화되어 인구 이동이 안정화되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는 같은 신도시형 혁신도시이지만 기존 도시와의 인접성과 기반시설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 같은 차이가 인구 유입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북혁신도시에 비해 직업 목적의 이주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가족, 주택 목적의 유입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광주·전남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높게 나타나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0대 인구, 1인 세대주에 이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수도권 유입도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더 높게 나타남
- 전북혁신도시는 주택 목적의 이주가 다수로 나타나며, 30대 인구뿐 아니라 40대와 50대의 이동, 가족 단위 이동이 보다 많이 발견됨
 - 전북혁신도시는 주택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족 단위, 40대와 50대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비해 40대와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임
 - 1인 세대주의 이동은 줄어들고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동해 온 지역별로 보면 20대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면서 수도권의 비율이 7.7%로 낮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의 전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두 도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미혼신혼기, 미취학아동기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교육기나 자녀성년기 가구는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학교육기, 자녀성년기로 갈수록 인구이동률은 적어지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추가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 정책적 시사점

-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이전한 기관이나 이전인원에 비해 주민등록인구 달성률이 낮은 것은 직업 목적 이외에 가족, 주택 목적의 이주가 적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나주시에 속해 있기는 하나 나주시와도 별도로 독립된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광주생활권으로 편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편의시설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 규모가 필요한데, 혁신도시 인구를 달성하더라도 혁신도시 계획인구 중 최대인 4.9만 명만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크게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결국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주, 광주와의 교통 연계를 통해 현재 부족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서울의 이주인구를 유입하거나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구를 유입하지는 못하지만 주택과 가족 목적의 이주를 많이 유입하고 있으며,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만성지구, 산업단지과 연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는 도시경계에 인접해 있어 장기적으로는 둔산과 같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전북혁신도시는 아직은 개발 중인 지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주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약한 편이어서 혁신도시를 계기로 서부지역의 도시 내부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로 볼 때 현재 유입된 30대, 40대가 시간이 흐르며 유출되지 않고 도시 구성원으로 남아 도시가 안정화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함
 - 대전정부청사가 이전한 둔산신도시와 비교해보면, 대전도 초기에는 30대와 9세 이하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40대와 50대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대전청사 이전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 거주율이 증가하고, 연령층, 자녀 교육연령도 증가하였으나 가족 모두가 이주한 경우는 이전 10년후에도 65.8%에 그쳤음

-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자녀교육의 이유로 별도가구를 형성하는 사회 추세로 인해 가족 동반이주율은 크게 높아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됨
- 혁신도시에 단신 또는 가족의 일부만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경우 주요 사유가 자녀교육문제와 가족 직장 문제였으며 이중 자녀교육문제 개선이 이주 가구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문제를 감안하여 배후 인구 규모 형성에 유리하고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심형 입지를 고려하여야 함

- 혁신도시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공공이 조성할 수 있는 정주환경에는 한계가 있음
-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금융·상업·교육·숙박시설 등 민간의 편의 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배후인구 규모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내부에 입지하여 도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볼 때 도심으로 간 혁신도시가 인구 달성, 주변 지자체의 인구 흡수로 인한 갈등 등이 적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한겨레 2019)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http://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8%EC%B0%B8%EA%B3%A0%EC%9E%90%EB%A3%8C%29+%ED%98%81%EC%8B%A0%EB%8F%84%EC%8B%9C+%EC%8B%9C%EC%A6%8C2+%EC%B6%94%EC%A7%84%EB%B0%A9%EC%95%88.pdf> (2019년 8월 20일 검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4월 21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혁신도시 통계자료, 12월 31일. 보도자료.

나주투데이. 2019. '상가 공실률 70%'...나주혁신도시 '반값 상가' 성공할까, 10월 23일.

<http://www.na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53>. (2019년 11월 4일 검색).

대전일보. 2008.10.16. 대전 동서간 교육격차 여전; 10월 16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82913 (2019년 9월 6일 검색).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인구통계 읍면동 자료. url. 2019.8.~9.

매일경제 레이더P. 2018. 대전지역 정책 '0순위' 동서 지역격차 극복, 5월 23일.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13000001&no=16708>. (2019년 9월 6일 검색).

문경원, 임병호, 김홍태. 2008.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효과분석.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서던포스트. 2019.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윤영모. 2017.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윤영모, 류승한, 정우성, 남기찬, 김다윗, 황의정, 이원섭 외. 2018.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촉진방안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체계 구축. 세종: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2017.01.18. 전주시 4년 후 지형 확 바뀐다...택지개발 곳곳서 '활기'.

<https://www.yna.co.kr/view/AKR20170118147000055>. (2019년 9월 22일 검색).

중앙일보. 2019.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소멸 방지말라, 9월 11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575553> (2019년 10월 22일 검색).

통계청. 2019.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 1월 29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bSeq=&aSeq=372979&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19년 8월 28일 검색).

한겨레. 2019.9.17.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 좋은 도심형 우선 검토해야, 9월 17일.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09763.html#csidxfbce0ce0ed9bd60ba5a3fe52ef91b32 (2019년 10월 22일 검색).

한국감정원. 2018. '신도시 및 혁신도시의 상가밀도 진단과 시사점'. 2018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발표 통권 8호: 112-127.

혁신도시 시즌 2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4&styp=1> (2019년 9월 9일 검색).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읍면동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vw_cd=MT_ZTITLE&list_id=A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9년 8월 20일 검색).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19-13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 구 진 정유선
발 행 일 2020년 1월 9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